

이 새해에 저는



부산 광주 지역 대표
한 인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충만하신 축복이 성도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새해에는 발전과 성장의 보폭을 더욱 넓히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새해에,

발전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아들이고 싶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더 자상한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큰소리로 복음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마치 스스로는 완벽한 지도자이고, 계명의 원리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역원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내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역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웃한 벗들에게, 복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겠지만 이 기심을 버려야 하고 교만한 생각도 버려야 하고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용납하기도 해야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숫자로 늘어나는 스테이크도 보고 싶지

만, 그 숫자의 개념이 진정한 시온의 스테이크로 승화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새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던 천국의 느낌을 서로에게 확신시켜 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일해야 하는 분명한 간증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큰소리가 전해지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정을 전한다는 간곡한 인사를 받는 자가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친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도 억울한 입장에서조차 한 마디의 변명이 없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웃과 형제를 비난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새해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강서, 청주 스테이크 조직됨)

1982년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노량진에 있는 제7와드에서 '82년도 후반기 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는 인천 스테이크와 합동으로 갖게 되었으며 감리는 총관리역원인 브래드포드 장로가 맡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강서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가 새로 조직되는 경사스러운 대회였으며 숫자 와드가 지역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새로 조직된 강서 스테이크 부장에는 이 도환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제1보좌는 이 광정 형제, 제2보좌에는 홍 현길 형제, 집행 서기에 길 정권 형제, 서기에 이 재훈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강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에는 임 인선 형제, 신 천수 형제, 이 창빈 형제, 서 창현 형제, 김 두성 형제, 안 승국 형제, 하 봉식 형제, 민 신희 형제 그리고 길 정권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또한 강서 스테이크 산하 단위 조직은 다음과 같다(팔호 안은 감독, 지부장 이름).

화곡 와드(김 광오), 강서 와드(김 백주), 개봉 와드(윤 재철), 신길 와드(고 천석), 부천 지부(김 창록), 신정 지부(정기만), 공항 지부(송 진해), 신월 지부(전우식), 영등포 지부(김 중갑), 여의도 지부(박 승재).

이상 4개 와드와 6개의 지부, 강서 스테이크는 6년 전 신촌에 위치한 9와드로부터 분리된 화곡 지부가 발전하여 오늘의 스테이크를 이룩하는 모체가 되었다. 한편 청주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부장에 황 충열 형제, 제1보좌에 민 동근 형제, 제2보좌에 장 병순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인천 스테이크 소속이었던 부천 지부가 강서 스테이크 소속으로 경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인천 스테이크 부장단의 김 창록 형제가 해임되고 인천 와드 감독인 홍 유남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서 스테이크의 신태 지부와 시흥 지부가 와드로 승격되었다.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서 대전 지부가 유천 와드로 명칭이 바뀌었고, 감독으로는 스텔 이반 도렌 형제가 부름받았다.

영적 말씀 순서에서는 이 호남 장로가 10여 분 동안 말씀하였으며 주연사인 브래드포드 장로는 30여 분 말씀하였다.

브래드포드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18세부터 26세까지의 형제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특별히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사의 비율은 20 : 80이지만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여 80 : 2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특히 선교 사업을 통하여 얻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김볼 대관장님의 안부를 전하였다.

서울,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영동 스테이크 조직)



지난 1982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운동에 위치한 제4와드에서 '82년도 후반기 서울,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합동으로 열렸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는 서 스테이크 대회 감리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서울,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으며 4와드 안팎으로 모인 많은 회원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는 영동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으며 제3와드는 삼청 와드로 제4와드는 청운 와드로, 8와드는 신당 와드로, 그리고 (구) 청운 와드는 효자 와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변경된 서울 스테이크 소속의 고등 평의원과 감독 그리고 새로 조직된 영동 스테이크 역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최 옥환), 제1보좌(남 영진), 제2보좌(김 종열)

고등 평의원: 김 용일 형제, 김 영철 형제, 홍 순모 형제, 이 운행 형제, 한 상익 형제, 이 순철 형제

감독, 지부장: 삼청 와드(유 재순), 청운 와드(김 태석), 효자 와드(최 무선), 혜화 와드(박 성진), 신당 와드(박 관호), 금호 지부(정 중현), 농아 지부(윤 영구), 행당 지부(전 종열), 한남 지부(구 윤성),

영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박 재암), 제1보좌(서 희철), 제2보좌(배 영천)

고등 평의원: 최 귀열 형제, 송 재현 형제, 이 현철 형제, 김 과영 형제, 박 광식 형제, 주 덕영 형제, 조 성호 형제, 박 중식 형제, 박 승환 형제, 김 석주 형제, 전 홍수 형제, 배 창근 형제, 김 홍배 형제.

감독, 지부장

잠실 와드(안 경일), 영동 와드(정 윤), 성남 와드(정 옥), 천호 와드(최 상섭), 화양 와드(이 재갑), 성남 중앙 지부(양 정일), 둔촌 지부(박 승환), 모진 지부(박 정빈), 반포 지부(장 지호), 은마 지부(배 창근) 그리고 모진 지부장으로 수고하였던 정 연우 형제는 서울 선교부장단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고 원용), 제1보좌(손 승은), 제2보좌(구 본동)

고등 평의원: 손 완경 형제, 최 동일 형제, 손 승주 형제, 이 호봉 형제, 오 용근 형제, 김 홍운 형제, 강 종태 형제, 조 문

환 형제, 서 재균 형제, 여 운경 형제, 홍 순영 형제, 이 재두 형제.

감독, 지부장 : 용두 와드(김 남영), 미 아 와드(이 우영), 상계 1와드(김 병희), 상계 2와드(서 기원), 면목 와드(이 중훈), 청량 와드(조 만구), 도봉 와드(김 영근), 춘천 와드(강 시용), 태능 와드(박 희원), 번동 지부(임 수빈), 삼선 지부(최 동일), 장위 지부(김 경선), 이문 지부(오 용근), 교문 지부(한 영민).

이상의 모든 스테이크 행사를 브래드포드 장로의 위임을 받아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가 행하였다. *

이 경은 자매 특상 및 장학금 받음



지난 1982년 10월 17일 호루겔 강당에서는 서울 음악 교육회 주최 제 13회 전국틴 에이지 피아노 경연 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이 시상식에서 번동 지부 소속의 이 경은 자매가 전국에서 선발된 20명의 참가자 중에서 영예의 특상과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10월 3일 예선을 거쳐 올라온 학생들이 10월 9일 본선에서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는데 이 자매가 연주한 곡명은 다음과 같다.

예선 : Clementi : Sonata Op.2 No.1
1st Mov. Allegro

본선 : Liszt : Trois Etüdes de Concert No.3 Allegro affettuoso

이 자매는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의 차녀이기도 하다. *

'82년도 신학 연구원 동문회

충정 와드(구 제2와드)에서는 1982년 10월 26일 이 호남 장로를 비롯하여 9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82년도 신학 연구원 동문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 주 안건으로 회원들의 구직 문제와 장례 문제들을 다루었고 임원 변경이 있었는데 회장은 조규영 감독이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허채인천 스테이크 부장과 김정숙 자매, 총무에는 정성경 자매 그리고 서기로는 권명순 자매가 선출되었다. 임원 선출이 있은 뒤에 저녁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도봉 와드 신축 예배당 준공

지난 1982년 11월 28일 서울 동 스테이크 소속의 도봉 와드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축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보았다. 지난 3월 28일 기공식을 가진 뒤 8개월만에 준공된 새 예배당은 대지 2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건평 150여평의 아담한 건물이다.

첫 모임을 갖는 날 와드 대회를 겸하여 고원용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스테이크 역원이 함께 하였으며 교리와 성약 14편 3절을 주제로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김영근 감독을 비롯하여 와드 회원들은 물론 이웃 번동 지부 회원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동안 전세 건물에서 모임을 갖던 시절을 회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도봉 와드의 주소 : 서울 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4-28 전화 994-1109. *

여수 와드 새로운 건물로



사진설명: 좌: 류 금남 형제 중앙: 장 용택 감독 우: 장 봉인 형제

광주 스테이크 여수 지부는 작년 10월 24일 지부에서 와드로 승격되면서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였다. 11월 7일부터 첫 예배를 보았으며 감독으로 장 용택 형제가 임명되었고 제1보좌에 류 금남 형제, 그리고 제2보좌에는 장 봉인 형제가 부름받았다.

*



차 종환 형제 내한

20년 전 한국 선교부 설립 후에 한국 지방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차 종환 형제가 지난 1982년 11월 대한 민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지도자 25명을 이끌고 내한하여 통일 문제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였다. 차 형제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관리 감독단 한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영적인 말씀과 간증을 전하는 등 한국 성도를 찾아 다니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도들의 소식과 안부를 전해 주었다. 그는 해외 성도들로부터 한국 신전 건립을 위하여 3만불 이상의 신전 기금을 모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최근에 박사 학위를 하나 더 받은 차 형제는 한국의 매스컴을 통하여 자신과 그의 방문 목적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차 형제는 현재 로스앤젤리스에 거주하고 있다.

*

북 스테이크 대회

지난 1982년 11월 2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녹번 와드에서 약 95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모인 가운데 '82년도 후반기 북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관리 역원인 브래드포드 장로의 위임을 받아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이 스테이크 행사를 하였는데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던 박기생 형제가 해임되었고 그 후임으로 송평중 형제가 지지되었고 또한 제2보좌에는 전 종철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이날 17명의 대신권 소유자가 탄생되었으며, 6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던 정 민호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고 그 후임으로 이 준택 형제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와드의 명칭이 바뀐 와드를 살펴보면 6와드는 녹번 와드로, 녹번 와드는 역촌 와드로, 9와드는 신촌 와드로 그리고 2와드는 충정 와드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구역 밖에 거주하는 역원은 모두 해임되었고 해당 와드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업에 열중하도록 조치되었다. *

최 송진 감독 대한 체육회 회장상 받음



광주 스테이크 제3와드 감독으로 수고하고 있는 최 송진 형제는 1982년 10월 29일 대한 체육회에서 주최한 학교 체육 논문 발표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대한 체육회 회장상을 획득하였다.

*

한국 몰몬 합창단 제3회 정기 공연 성료



한국 몰몬 합창단 제3회 정기 공연이 지난 1982년 11월 3일 유 관순 기념관에서 많은 성도들의 성원 속에 베풀어졌다. 이번 공연은 예년과 달리 대곡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도, 주기도문, 사랑의 무지개 등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곡을 발표하여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며 자유스러운 복장과 타악기 등을 연주하여 색다른 분위기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특별 출연으로는 녹번 와드의 구 정희 자매가 첼로 독주를 하였는데 구 자매는 서울시향과 협연한 적도 있는 유망한 회원이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63명의 단원은 모두 전문적인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회원들이며 현재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 귀환 선교사 10명이 포함되었다. 단원들은 모두 각자 소속된 와드, 지부에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합창단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음악적인 재능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실한 회원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다. 입단을 원하는 형제 자매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총정 와드에서 갖는 정기 연습일에 참여하고 등록을 하면 된다.

한국 몰몬 합창단 단장은 홍 무광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이며 지휘는 망원 지부의 최 현수 형제, 반주자는 총정 와드의 이 회경 자매, 개봉 와드의 김 순복 자매가 수고하고 있다. 한편 합창단의 총무로는 허 병석 형제가 수고하고 있으며, 부총무는 기 영서 형제 그리고 김 영옥 자매, 정 성혜 자매, 강 회숙 자매가 서기로 수고하고 있다.

*

태너 부대관장 별세



11월 30일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엔 엘 돈 태너 부대관장(향년 84세)의 영결식에 수천 명의 조객들이 참석했다. 태너 부대관장은 지난 11월 27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분은 오랫동안 만성 신경 질환으로 시달려 왔음에도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며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간증했다.

김볼 대관장은 그의 제1보좌인 태너 부대관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가까이 지내며 호모하고 훌륭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왔읍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몹시 적적해질 것입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사라 태너 자매와 5명의 딸들과 24명의 손자, 그리고 50명의 증손자가 있다.

태너 부대관장의 약력

1898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 캐나다 앨버타에서 성장하여 교육계, 실업계에서 훌륭한 교육을 쌓았으며 정부 고위직을 맡기도 하였음. 한편 교회에서 많은 중요한 부름을 받음.

1960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음.

1962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음.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등 4명의 교회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함. *

동독에 스테이크가 세워짐

동독에서의 첫번째 스테이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에 의해 최근에 조직되었다. 유럽 지구의 집행 관리자이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몬슨 장로를 도와 일했다.

동독 프라이버그 스테이크인 이 새로운 스테이크에는 이 나라의 4,000명의 물몬들 중에 약 1,880명이 속해 있으며, 몬슨 장로는 “이곳의 활동 표준은 교회 내에서 가장 높고, 특히 신학 연구원 중등부 참석 수는 모든 다른 곳의 학생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몬슨 장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새 스테이크의 전체 지역에 복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의 말일성도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1851년에 독일어를 사용하자는 유럽 국가에서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년 내에 선교부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으며, 물몬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1920년에는 이 선교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이었다. 교회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한편 다른 개종자들은 고국에 남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동독에서의 교회 성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사실상 서서히 발전해 왔으나 지역 지도자들과 방문 총관리 역원들의 노력을 통해 이곳의 교회 활동은 효과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다. *